卷頭言

김 만 섭
사) 한국오리협회장

금년에는 계획된 사업을 기필코 달성하여 한층 더 발전하는 오리산업의 모습을 보입시다.

금년도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합니다. 지난 1월호에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사업을 열거하였는데 다시 강조하면, 종오리등록제사업, 오리자조금사업, 종오리데이타베이스 사업, GPS사업 등을 열거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화합과 단합된 힘으로 진행하여 봅시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도압장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계획된 사업을 기필코 이룩합시다.”

신규로 신청하는 도압장은 미리미리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에 대한 포장의무화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8만수 이상의 도계장이 해당되나 2008년에는 5만수 이상의 도계장이 해당되며, 2009년도에는 우리 오리업계의 도압장도 해당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포장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단기간 내에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픈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금년 2월 10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지원유무를 검토후에 승인이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1년전에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사업이 수행의 기반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일환인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내년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금년(2007.1.24)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GPS사업추진을 위한 영국육종회사와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순서는 양해각서의 초안이 국내에서 마련되면, 최종 MOU를 영국체리베리사와 체결하는 것이며, 다음은 부지마련과 원종부화장, 성압오리사, 육성오리사의 암컷라인, 수컷라인 등의 축사시설과 관리사, 부대시설을 준비하여야 하는 등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MOU협상과 아울러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병행 추진함에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GPS의 사업을 기필코 하겠다는 투자자의 의지표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합심 노력하여 3년 전부터 여망하였던 GPS사업을 금년에도 꼭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시 되도록 합시다. 말로만이 아닌 실천계획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단결이 중요합니다. 한걸음씩 뒤로 물러서서 양보하는 미덕을 나타냅시다. 양보는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소득입니다. 정말로 실천해 봅시다.